

소재 생산기업 영업이익 34% 급감

수요 감소에 원료코스트 상승 ... 유럽 재정위기에 국내경기도 하강

상장기업들의 1/4분기 영업이익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.

금융정보기업 에프엔가이드는 “98개 상장기업들의 2012년 1/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2011년 7월 말 27조 2677억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23조8949억원으로 6개월만에 12.37% 감소했다”고 1월26일 발표했다.

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요가 줄어들고 원자재 코스트가 상승에도 가격 전가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재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33.66%, 에너지 19.27%, 의료 15.70%, 산업소재 13.61%, 통신서비스 12.69% 감소했다.

증권기업들에 따르면, 상장기업 98사의 2011년 4/4분기 영업이익이 3/4분기에 비해 6.58% 감소하고, 2012년 1/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.27%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.

반면, 2012년 2/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5조9321억원으로 1/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.

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,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2011년 1/4분기에 19.6% 증가했다가 2/4분기 7.72% 감소했으며, 3/4분기에는 감소세가 26.35%까지 확대됐다.

솔로몬투자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“2011년 1/4분기를 고점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”며 “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상황이 좋지 않고 국내경기도 하강하고 있기 때문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1/26>